

# 전국동계체전 오늘 팡파르... 광주·전남 선전 기대

21일까지 17개 시도 4251명  
전남 9위·광주 13위 목표  
전남 바이애슬론서 금 기대  
광주 사전경기 2개 메달 획득



국내 최대 겨울스포츠 제전인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18일 개막해 열전에 돌입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30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펼친다.

이번 동계체전은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빙상, 바이애슬론,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루지 등 8개 종목에 총 4251명의 17개 시도 선수단이 참가한다.

빙상 스피드스케이팅(1월15~17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과 쇼트트랙(1월11~14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빙상장), 피겨(1월20~23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빙상장) 등 3개 종목은 사전 경기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전남도선수단은 루지를 제외한 7개 종목에 193명(선수 112·경기임원 41·본부임원 40명)이 참가한다. 지난 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금 18·은 11·동 10개)과 최고 득점(351점)으로 종합 8위를 기록했던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는 금 15·은 2·동 5개 획득과 종합 8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은 사전 경기인 빙상 쇼트트랙과 피겨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4점을



전남 바이애슬론 티모페이 랍신

획득했다.

전남은 이번 대회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국가대표이자 지난 103, 104, 105회 대회에서 4관왕을 달성한 티모페이 랍신과 최근 하얼빈 동계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를 내세워 금 5개와 은 1개, 동 1개를 노린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도 3년 연속 5관왕(103·104·105회)을 차지한 조다운(화순제일중 3년)을 앞세워 금 5개와 동 3개에 도전한다.

스키 알파인 종목의 강다현(여수삼일중 3년)은 4관왕을 목표로 하고, 지난해 창단한 전남체육중·고등학교 스키부 선수들의 활약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산악에서는 지난달 12일 '2025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과 '전국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영건(월출마



전남 크로스컨트리 조다운.

당산악회)의 금메달이 기대된다.

광주는 봅슬레이스켈레톤과 루지 등 2개 종목을 제외한 6개 종목에 114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종합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금 1·은 2·동 4개를 따내며 종합득점 161.5점으로 종합 1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선 사전 경기를 통해 동메달 2개와 종합득점 23점을 확보했다.

장운우(성덕중 1년)가 지난달 15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빙상 스피드 남자 15세 이하부 마스터트에서 20포인트를 획득, 동메달을 목에 걸며 광주선수단에 첫 메달을 선사했다.

나건욱(태봉초 6년)은 16일 열린 남자 12세 이하부 1000m 경기에서 1분26초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가 18일 강원도 일원에서 개막하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금빛 사냥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아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게임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46을 기록하며 광주 두 번째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는 본 경기에서 최근 토리노 동계 U대회 바이애슬론 국가대표로 출전한 최

수린(광주교대 1년)과 산악 스피드의 최민준이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 광주FC, 亞 무대 토너먼트 앞서 유종의 미 거둘까

오늘 부리람 유나이티드 FC와 안방에서 리그 스테이지 최종전 체력 안배·부상 방지 초점 예고



창단 첫 아시아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16강 토너먼트 티켓 조기 확보까지 성공한 광주FC가 리그 스테이지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를 노린다.

광주FC는 18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리람 유나이티드 FC와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최종전(8차전)을 치른다.

리그 스테이지 4승 1무 2패(승점 13)로 동아시아 4위에 오른 광주FC는 최소 7위를 확보하며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지었다. 하지만 대진이 동아시아 1위와 8위, 2위와 7위, 3위와 6위, 4위와 5위 간의 맞대결로 이뤄지는 만큼 최종전의 중요성이 적지 않다.

또 광주FC는 올해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1일 ACLE 산둥 타이산전에서는 1-3으로 패했고, 15일 K리그 1 수원FC전에서는 0-0으로 비기며 아쉬움을 안았다.

ACLE와 K리그1에서 함께 상승세로 갈 수 있는 조석이 될 수 있는만큼 이정호 감독은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감독은 17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체력 안배와 부상 방지가 필요해 변화를 줬다"면서도



광주FC가 18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리람 유나이티드 FC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최종전을 치른다. 사진은 지난 15일 광주FC와 수원FC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개막 경기.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선수들에게 경험도 쌓아주고 자신감도 충전해 줄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잘 준비한 선수들이 성장해서 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강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기도 골을 넣기 위해 준비했다. 16강에서 어느 팀과 붙든 목표인 파이널 스테이지 진출을 이뤄 세계적인 선수들과 맞붙을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의 예고대로라면 광주FC는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할 전망이다. 직전 경기에서 체력을 안배한 자시르 아사니와 김한길, 오후성, 박정인, 황재환, 강희수, 박태준, 이강현 등의 출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신창무와 권성운, 조성권, 안혁

주 등도 출격이 기대된다.

변수는 상대의 탄탄한 선수층이다. 타이 리그 1(태국 1부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부리람 유나이티드 FC는 지난 12일 ACLE 울산HDFC전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K리그1 디펜딩 챔피언에 예선 탈락이라는 아픔을 안겼다.

당시 부리람 유나이티드 FC는 수파낫 무에안타를 제외하고 선발 라인업을 모두 외인으로 꾸렸다.

이름값이 높은 선수는 없지만 공수 양면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K리그 경험이 풍부한 김민혁과 고명석이 수비진에 포진해 있어 이들을 뚫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한규빈 기자

## 광주FC 이강현 "모든 경기는 승리가 목표"

올 시즌 앞두고 부주장 선임 중원에서 공백 최소화 중책

광주FC에서 3년 차를 맞은 이강현(사진)이 올해 중원에서 정호연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이정호 감독은 그를 주장단에도 선임하며 확실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이강현은 부리람 유나이티드 FC와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최종전(8차전)을 하루 앞둔 17일 결전지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훈련을 소화했다.

이강현은 이날 공식 훈련 후 공동취재 구역에서 인터뷰를 갖고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부상당했던 부위를 잘 관리하면서 차근차근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ACLE와 K리그를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 모든 선수들이 모든 경기를 이기기 위해 경기에 나선다"고 마음가짐을 드러냈다.

이어 "선수들과 16강 진출 확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부분을 의식하다 보면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에게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하다. 이번 경기도 16강 대진이 아니라 우리 축구를 얼마나 구현할지, 이기기 위해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 경기에 대한 간절함은 이강현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FC 입단 첫해인 2023시즌 26 경기를 소화했던 이강현은 2024시즌에는 13경기 출장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지난해 부진하면서 경기를 많이 못 뛰었다. 올해를 준비하며 독한 마음을 먹었다"며 "경험을 토대로 지혜도 얻었다. 보완점과 필요점을 고민하면서 준비했고, 개막 직전까지 훈련과 미팅을 통해 팀에 완벽히 녹아들기 위해 노력했기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무대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16강까지는 동아시아 팀을 상대하지만 파이널 스테이지(8강 이상)부터는 서아시아 팀들과 맞대결을 치르는 구조다.

한규빈 기자